

문예중흥 5개년계획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민족기록화의 형성

박정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한국회화사 전공

junghp@aks.ac.kr

I. 머리말

II.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과 민족기록화 제작 사업

III.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기록화의 형성 경위

IV.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민족기록화의 내용과 특징

V. 맺음말

I. 머리말

민족기록화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국가 지원을 받은 두 차례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창출되었다.¹ 그 과정을 약술하자면, 첫 번째는 1967년 당시 5.16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김종필(金鍾泌, 1926~2018)이 기획하고 민족기록화제작사무소(대표 이원엽)가 추진한 사업이다.² 55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숫자의 화가가 1000호(약 530×290cm) 혹은 500호(약 250×330cm) 크기로,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대형 작품을 단기간에 한 점씩 제작했다. 캔버스, 물감 등 재료부터 화려한 액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물자가 제공되었고 이 완성을 일시에 이루어 낸 강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었다. 이 55점은 〈민족기록화전〉이라는 이름으로 1967년 7~8월 경복궁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³

두 번째 민족기록화 제작은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4~1978)의 일

※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AKSR2023-P02).

- 1 민족기록화에 대한 주요 연구는 박영남, 「민족기록화 10년의 채점표」, 《계간미술》, 1979년 가을호, 175~176쪽; 정영목, 「한국 현대 역사화: 그 성격과 위상」, 『조형』 20 (1997), 58~78쪽; 박혜성, 「1960-70년대 민족기록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채효영, 「박정희 정권의 민족 정체성과 민족기록화 사업: 《구국위업편》, 《전승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와 예술』 7(2010), 68~92쪽; 김재수, 「현대 역사화에 대한 반성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30(2011), 255~276쪽; 조기쁨, 「전쟁 주제의 민족기록화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9) 등이 있다.
- 2 1967년 민족기록화 제작 사업의 배경과 추진 과정, 김종필의 역할, 작품 55점의 작화 경향과 구성 등에 관해서는 이 호의 특집 “한국 근현대 민족기록화를 다시보다”에 포함된 황정연, 「1967년 민족기록화전 고찰」과 강민기, 「1967년 민족기록화 사업과 〈구월산지구 유격대〉 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므로 중복을 피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논외로 했다.
- 3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 전시회 도록인 (재)5.16민족상(편), 『민족기록화전』 (서울: 경복궁미술관, 1967) 참조. 이 전시는 (재)5.16민족상이 주최하고 국방부, 문교부, 공보부가 후원했다.

환으로 문화공보부(이하 문공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300호 크기의 경제편(2차) 20점, 전승편 20점, 구국위업편 20점, 문화편 14점 등 총 74점 제작을 연차적으로 추진했으며, 1979년 이후에는 사업을 이관받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의해 1980년에 완결되었다.⁴ 이 74점 외에 문예중흥계획 안에서 민족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기 전인 1973년 6월에 이미 문공부는 경제편(1차) 30점을 화가들에게 의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1970년대에 제작된 민족기록화는 총 104점으로 집계된다. 1973년의 경제편(1차) 제작은 엄밀히 말하면 문예중흥 5개년계획 안에서 추진된 사업은 아니지만 1970년대 민족기록화 제작의 모태가 된 선행 사업으로서 한 범주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공부는 두 번째 민족기록화 제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인 1972년에 <새마을 미술전>과 <월남전 기록화전>을 주관했다.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새마을 미술전>은 미술작가와 사진작가 25명이 48개 새마을을 현지답사(5월 9~13일)하고 이를 소재로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 자리였다.⁵

<월남전 기록화전>은 같은 해 12월 8일부터는 2주 동안 국방부의 후원을 받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⁶ 미술협회 이사장 이마동(李馬銅, 1906~1980)을 단장으로 화가 10명이 6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베트남에 파견되어 전투 현장과 부대, 병원 등을 현지 답사한 뒤 주월 한국군의 활약상과 그들의 대민 봉사활동을 150호에서 300호에 이르는 작품 21점에 담아 공개한 전시회였다. 당시 문공부장관은 “사진에 의한 기록보다 예술성과 생명

4 한국문화예술진흥원(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5년사』(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198쪽; 『문예진흥원 20년사』(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204~206쪽 참조.

5 《매일경제》, 1972년 5월 20일; 《경향신문》, 1972년 10월 2일.

6 문화공보부(편), 『월남전 기록화 전시회』(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72).

력이 있는 기록화를 통해 파월 국군의 전공을 후세에 알린다.” 라는 전시 취지를 밝혔다. 예술 창작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의 한 가지로 기획되었지만, 1971년 12월에 시작된 한국 정부의 베트남 병력 철수가 완료되기 전에, 참전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지원했던 한국군의 역사적인 모습을 기록화로 남겨 활용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 같다.

이 외에도 1970년대에 문공부 산하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주요 역사 인물을 선양하는 성역화 사업을 여러 건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기념관에 전시될 역사적 내용의 대형 구상화가 다량 생산되었다. 세종대왕 영릉(英陵), 금산 칠백의총(七百義塚), 강릉 오죽헌, 아산 현충사, 한산도 제승당(制勝堂), 경주 통일전(삼국통일 위인 유적) 등에 전시된 역사기록화가 이에 속한다.

여기서 유념할 한 가지는 〈새마을 미술전〉, 〈월남전 기록화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 주최 측에서 이 그림들을 기록화라고 지칭했을 뿐 민족기록화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300호 이상의 사실적인 구상화 제작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공공미술로써 전시를 통해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는 민족기록화와 서로 비슷하다. 그래서 유사한 외형 때문에 혹자는 확대된 개념에서 이 그림들까지 민족기록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과 규모, 추진 과정과 내용, 활용 면에서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민족기록화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이를 당시의 주최 측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족기록화란 1967년에 제작된 55점과 1973년에 시작하여 1980년에 완결된 104점을 포함하는 159점으로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작 흐름을 가진 민족기록화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에는 12점이 소장되어 있다(표1).⁷ 이 중에서 10점은 민족기록화 사업의 마지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하 정문연)은 2005년 2월 1일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두 명칭을 사용 시기에 따라 혼용했다.

표1-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민족기록화 일람표(소재의 시대 배경순)

연번	배경	제목(완성 연도)	작가/ 생몰년	작가의 다른 민족기록화
1	선사 시대	울주반구대암각도 (1978)	김창락(金昌洛) 1924~1989	〈천개도〉(1967), 〈쌍용시멘트〉(1973), 〈원양 어업〉(1975)
2	고구려	고구려 고분벽화 (1977)	이종상(李種祥) 1938~현재	〈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1975), 〈태종무열왕〉(1976)
3	신라	화랑도의 수련 (1978)	정창섭(鄭昌燮) 1927~2011	〈괴뢰군 탱크를 수류탄으로 파괴하는 특공대원〉(1967), 〈인천항 제2도크〉(1973), 〈인천항 도크〉·〈태백산 전투〉(1975), 〈조현 선생의 금산 전투〉(1976)
4		황룡사의 조영과 벽화(1978)	김태(金泰) 1931~2021	〈반공포로석방〉(1967), 〈신진자동차〉(1973), 〈동령부 우라산성의 공함〉·〈육진 개척〉(1975), 〈홍의장군 객재우〉(1976),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및 그의 생애〉(1979)
5		김대성과 석굴암 (1979)	이종상	
6	고려	예성강도(1978)	박성환(朴成煥) 1919~2001	없음
7		고려청자(1978)	문학진(文學晉) 1924~2019	〈존슨 미대통령 내한〉(1967), 〈지하철제1호선 승강구〉(1973), 〈쌍성수복〉·〈강원 탄광〉(1975), 〈파고다 공원의 3.1 독립만세 시위〉(1976)
8		고려대장경(1977)	최대섭(崔大燮) 1927~1991	〈민족대표의 독립선언〉(1976), 〈만민공동회의 민중대회〉(1978)
9		화포와 화약을 제조하는 최무선(1980)		
10	조선	정약용과 저술 (1980)	정창섭	
11	현대	8.15해방(1967)	윤중식(尹仲植) 1913~2012	없음
12		구월산지구 유격대 (1967)	김서봉(金瑞鳳) 1930~2005	〈서울부산고속도로〉(1973), 〈삼별초의 대몽항전〉(1975)

막 단계인 문화편에 해당하는 그림이다. 문화편 총 14점 중 대부분이 한중연에 모여 있는 셈이다. 나머지 소장품 두 점은 1967년에 제작된 55점 중 유일하게 소장처가 확인되는 윤중식(尹中植, 1913~2012)의 〈8.15해방〉과 김서봉(金瑞鳳, 1930~2005)의 〈구월산지구 유격대〉이다.⁸

이 논문은 1970년대 민족기록화가 제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과정과 사업이 완료된 후 작품의 활용 양상에 관해 알아보고, 한중연 소장의 작품 12점이 현재의 구성으로 형성되기까지의 경위를 추적하는데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회화 경향과 무관하게 사실주의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해야 했던 화가들이 각자 역사적 사실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낸 표현 방식에 관해 문화편 10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처음부터 한중연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민족기록화 12점이 소장되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민족기록화가 제작 완료된 후, 많은 숫자의 대형 작품을 관리하게 된 문예진흥원은 작품의 보관과 활용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안고 있었다. 따라서 한중연의 민족기록화가 거쳐 온 소장처 이동 경로를 알아보는 것은 민족기록화의 관리 방침과 활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하며 다량 소장처에 대한 하나의 사례 연구가 될 수 있다. 민족기록화에 대해서는 기존에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 논문에서는 기관 간에 왕래한 공문서와 신문 기사의 집중적인 분석에 기반하여 1970년대 민족기록화의 추진 경과와 활용의 실체에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8 이 논문에서 작품의 제목은 민족기록화 제작 추진 당시 문공부에서 제정한 원래의 제목을 사용하며 현 소장처에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제목은 논외로 했다.

II.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과 민족기록화 제작 사업

1. 1973년 문공부의 경제편(1차) 제작

1970년대 민족기록화 사업은 1973년 문공부에서 ‘발전하는 한국의 산업’을 주제로 경제편(1차) 30점 제작을 추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해 3월 국무총리에 취임한 김종필은 같은 해에 출범 예정이었던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 안에서 민족기록화 사업의 재개를 구상했다.⁹ 문예중흥 5개년계획의 출범은 이듬해로 지연되었지만, 계획대로 진행된 경제편(1차)의 제작은 이후 민족기록화 사업이 자연스럽게 문예중흥 5개년계획 안에 편입되는 근거가 되었다.

일괄 300호(약 290.9×197cm) 크기로 제작된 경제편(1차)의 대상은 한국이 이룩한 1960년대의 대표적인 경제개발 성과를 잘 보여주는 국내 주요 산업 시설과 우수 새마을 현장이다. 경제 관계 부처와 학계 인사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80여 개의 후보 대상 중에서 30개를 최종 선정했다(표2).¹⁰

실질적인 제작 면에서 1967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문공부가 선발된 중진 작가들이 작품의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시설과 새마을 지역을 답사해서 제작에 참고하도록 한 점이다. 1967년 민족기록화가 공개된 뒤 사실을 제대로 재현해 내지 못했다는 세간의 혹평을 염두에 둔 보완책으로서, 1972년에 ‘월남전 기록화’ 준비 단계에서 화가들을 베트남에 보내 현지를 경험하게 한 전례를 따른 것이다. 화가들은 서울·경기·충북, 충남·전북·전남, 강원·경북, 부

9 정갑영, 『한국문화정책 형성과정과 김종필의 역할 연구: 민족문화 이념을 중심으로』(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154~158쪽.

10 《매일경제》, 1973년 3월 8일; 《경향신문》, 1973년 3월 10일; 《조선일보》, 1973년 3월 15일.

표2-1973년 민족기록화 경제편(1차)의 작가, 소재 대상, 판매 내역 일람표

연번	작가	제목	지역	판매 예정 기업 (기관) · 가격(만 원) ^{II}	전시 도록에 기재된 1973년 당시의 기업 · 기관 특징(선정 이유)
1	김형구	고리원자력 발전소	부산 기장	한국전력/150	1970년 착공, 1976년 준공 예정인 한국 최 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2	이의주	호남정유	전남 여수	호남정유/150 (1974.4.2. 판매)	1969년 설립된 한국 최초 민간 정유회사, 1일 생산량 16만 배럴
3	임직순	석유화학 공업단지	경남 울산	석유화학공단/150	3대 기간 산업의 하나로 석유화학공업 육 성, 100만 평 대지에 단지 조성
4	오승우	포항종합제철	경북 포항	포항종합제철/200 (1974.4.8. 판매)	1968년 설립, 철강 공업의 육성
5	김창락	쌍용시멘트	강원 삼척	쌍용시멘트/200	1962년 설립, 세계 굴지의 대단위 공장
6	최덕휴	장성광업소	강원 태백	석탄공사/150	공업화에 필수인 한국 최대의 석탄 생산지
7	박득순	현대조선소	경남 울산	현대건설/200	1972년 착공, 1974년에 완공되면 단일 조선 소로 연간 유조선 140만 톤 생산 능력 갖추
8	김태	신진자동차	경기 인천	신진자동차/200	1974년까지 완전 국산화를 목표, 국내 최대 의 자동차 제조기업
9	박창돈	금성사	경남 부산	금성사/200 (1974.6.11. 판매)	1959년 설립된 국내 최대 전자전기 제품 제 조사
10	박항섭	한국기계	경기 인천	한국기계/200	1937년 설립, 한국 최대의 종합기계공업체
11	김숙진	한국비료	경남 울산	한국비료/150 (1974.4.18. 판매)	1964년 설립, 비료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지 정. 연간 33만 톤 생산의 세계적 규모로 성장
12	하인두	동명목재	경남 부산	동명목재/150	생산 능력 세계 5위의 국제적 규모 합판 생 산 업체로 성장
13	김종하	한일합섬	경남 마산	한일합섬/150	1964년 설립, 원자재 및 섬유제품 생산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
14	김원	마산공업단지	경남 마산	공단관리청/150	1976년 완료 예정인 수출자유지역 단지
15	김서봉	서울·부산 고속도로	충북 영동	한국도로공사/200 (1974.5.29. 판매)	1970년 개통,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건설된 총 연장 428킬로미터의 동양 최대 고속도로
16	박각순	남해대교	경남 남해	경남지사, 현대건설 (시공사)/150	1968년 착공, 1973년 6월 완성. 한국 최초 이자 동양 최대의 현수교
17	박광진	소양강댐	강원 춘천	산업기지개발공사/ 200(1974.7.1. 판매)	1967년 착공. 1973년 높이 123미터, 길이 530미터로 완공

연번	작가	제목	지역	판매 예정 기업 (기관) · 가격(만 원) ¹¹	전시 도록에 기재된 1973년 당시의 기업 · 기관 특징(선정 이유)
18	정창섭	인천항제2도크	경기 인천	인천시장, 동아건설 (시공사)/200	1966년 착공, 완공이 임박한 동양 최대의 선 거(船渠) 공사로 189억 원 투입
19	이마동	산지개발	제주 서귀포	제주도지사/150	감귤의 장려 시책 아래 1972년 서귀포에 400헥타르의 감귤단지 조성
20	장리석	국립종축장	충남 천원군	농수산부/150	1969년 설립, 각종 최신의 축산 시설이 완비 된 축산에 관한 조사 연구 시험장
21	전철봉	경지정리	충남 논산	충남도지사/200	새마을운동과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 진으로 질서정연하게 변한 경지
22	정영렬	조림단지	전북 무주 무진장	산림청/150	무주, 진안, 장수를 연결한 대단지 조림 사업
23	이용환	굴뚝목양식장	경남 마산	수산청, 수협/200	정부는 시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양식 어업 을 중점 개발하는 데 주력
24	문학진	지하철1호선 승강구	서울 시청 앞	지하철본부/200 (1974.11.13. 판매)	1972년 착공, 진행 중인 서울역-시청앞-종 로-청량리 구간의 서울 지하철 제1호선 공 사
25	박서보	수출선박	경남 부산	상공부/150 (1974.5.22. 판매)	높은 신장률을 보인 수출: 1972년 선박 수송 화물량은 5,000만 톤 규모이며 선박 보유는 세계 7위에 이름.
26	박영선	현충사	충남 아산	문화재관리국/150	1966 착수, 1969년 준공된 현충사 성역화 작업
27	손응성	불국사(복원)	경북 경주	문화재관리국/150	임진왜란 때 소실된 전각을 복원하고 원래 의 모습을 되찾음
28	장두건	종합우수 새마을	경기 양주 군 묵현리	경기도지사/150	천마산 아래 제멋대로 흩어졌던 마을이 새 마을사업으로 그림같이 변함
29	이동훈	환경정리 새마을	금산 추부 면 비례리	충남도지사/150	현대화된 기계로 풍요롭게 거두어들이는 추 수 광경
30	이인영	협업영농 새마을	경기 가평 군 개곡리	경기도지사/150	예전에는 정자나무 그늘에서 허송세월했으 나 이제는 합심하여 새마을을 이룩

11 볼드체는 실제로 판매된 작품으로 해당 기업과 판매 액수를 나타낸다.

산·경남, 제주 등 지역별 5개 반으로 나누어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둘러보고 조사했다.

완성된 경제편(1차) 30점은 1974년 3월 14일부터 2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개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도 개막식에 참석했다.¹²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경제편 기록화의 확대 제작을 지시했으며¹³ 이는 다음 해 문예중흥계획 첫해의 민족기록화 제작에 경제 관련 소재가 연속적으로 편성되는 데 명분을 제공했다. 문공부는 완성된 30점을 그림의 소재가 된 해당 기업체와 관계 기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경제편(2차)의 제작 경비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예정 판매액은 150만 원이나 200만 원 두 가지로 정해졌다. 전시 기간 중에 작품 판매 협조문을 발송하여 전시 후에 곧장 판매 협의를 진행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작품은 30점 중에서 8점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며(표2),¹⁴ 판매 대금 1,450만 원은 경제편(2차) 제작에 재투입되었다. 후술하겠지만 판매된 이 8점은 1998년 해당 기업(기관)에 완전히 반환되었으며, 그전까지는 문예진흥원이 관리권을 가지고 계속 활용해 나갔다.

2. 문예중흥 5개년계획과 미술 지원 사업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예정책을 다루겠다는 정부의 첫 시도인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은 1971년 7월 연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확정되어 1973년 문화의 날인 10월 20일에 「문예중흥선언」 발표와 함께 채택되었다.¹⁵ 이

12 《경향신문》, 1974년 3월 12일; 3월 14일. 총 관람 인원은 1만 1,595명으로 집계되었다.

13 박혜성, 앞의 논문(2003), 53쪽 및 각주 89 참조.

14 《경향신문》, 1974년 12월 25일; 《매일경제》, 1975년 2월 11일; 「진흥원일지」, 《문예진흥월보》, 1-3(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4), 53쪽; 「민족기록화 작품 활용 계획(안)」(1990, 아르코미술관 소장) 문서.

15 《조선일보》, 1973년 10월 20일. 최종안은 학술원, 예술원, 예총 등의 자문, 676명의 문예

미 이 계획의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했고 (1972.9.9), 문예진흥원도 발족(1973.10.11)한 상태였다. 문예진흥원은 재단 성격을 가진 기구로 문화예술 진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¹⁶ 10월 18일 김종필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문예진흥위원회는 문예진흥 5개년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했다.¹⁷

문예진흥 5개년계획에서 발표된 36개 사업은 크게 전통문화의 개발, 예술 진흥, 대중문화의 창달 등 세 가지로 간추려진다.¹⁸ 이를 통해 새로운 민족예술을 창조하며 국민의 문화 수준 향상하고 적극적인 국제교류로 문화 한국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목표였다. 총규모 약 250억 원이 투입되는 대대적인 계획이었다.

1) 1974~1976년 경제편(2차), 전승편, 구국위업편 제자

민족기록화 제작은 예술진흥 사업 중 미술 지원 부문에 속했다.¹⁹ ‘우선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점에서도 짐작되듯이 시작 단계부터 가장 중점적인 지원사

인을 대상으로 한 우편 의견 조사, 문예진흥정책 세미나 등을 거치면서 보완되었다.

16 조성길, 「문예진흥원의 운영방향과 사업」, 《문예진흥월보》 1-1(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4), 6~9쪽. 조직은 사무국 아래 총무부, 국학진흥부, 진흥1부, 진흥2부, 사업부 등을 두었으며 부설 기구로 자료실, 미술회관, 연극인회관을 두었다. 민족기록화 사업은 진흥1부 소관이었다.

17 《조선일보》, 1973년 10월 20일.

18 「문예진흥 5개년계획 개요」, 《문예진흥월보》 1-1(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4), 10~15쪽.

19 예술진흥 사업은 크게 ①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대중문화 등 예술 창조자의 지원, ② 정책 개발과 조사 연구 등 기반 조성, ③ 국제문화교류, ④ 국학 및 문화재 선양 지원 등으로 나뉘었다. 미술지원 분야에서는 민족기록화 제작 외에 우수 미술품의 구입, 대한민국의 미술대전을 비롯해서 단체전 및 그룹전 지원, 미술전문지 및 자료집 등 출판 지원, 미술용품 관세를 인하 등을 추진했다.

업으로 추진된²⁰ 민족기록화 사업은 1967년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 매년 제작 범위를 넓혀 갔다. 1974년 제1차 연도에는 경제편(2차) 20점과 전승편 20점 제작을 지원했으며 1975년에는 구국위업편 20점을 지원했다(표 3).²¹ 민족기록화는 내용 면에서 크게 두 종류로 구별했다. 하나는 국민의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국난을 이겨 낸 조상의 위업을 소재로 한 ‘민족사화(民族史畵)’로 전승편, 구국위업편, 문화편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경제편으로 새마을운동 및 경제개발을 담은 ‘경제개발성과기록화’이다.²²

문예진흥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정한 지원 체제의 확립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1년 임기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었다.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방법, 지원 금액, 사업 결과 확인 등을 심의했다.²³ 문예진흥원은 정관에 따라 1974년 2월에 19개 분야의 총 23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상설위원회 10개 중에는 민족기록화와 관련된 ‘전승편 제작추진위원회’와 ‘경제편 제작추진위원회’가 포함되었다. 상설위원회에서 차지한 민족기록화의 비중만 보아도 미술지원 사업의 첫 단계에서 민족기록화는 대단히 주요한 사업으로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승편 제작추진위원회는 이병도(학술원장), 이은상(민족문화협회장), 유광렬(언론인), 유봉영(백산학회장), 김철준(서울대 교수), 한우근(서울대 대학원장), 최영희(국사편찬위원장), 박종화(예술원 회장), 이형석(국방부 전사편찬위원장), 최순우(국립중앙박물관장), 정종택(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창희(국무총리실 제1행정조정관), 정세문(문교부 편수국장) 등 13명으로 구성되었다.

20 《경향신문》, 1974년 2월 8일.

21 박혜성, 앞의 논문(2003), 49쪽 및 각주 82 참조.

22 《중앙일보》, 1973년 12월 26일. 당초에는 민족사화는 매년 30점씩, 경제개발기록화는 매년 50점씩 제작함으로써 5년 동안 기록화를 집대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3 23개 위원회는 전통문화·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 등 6개 분야의 지원심사위원회 10개, 5개년 계속사업을 심의 추진하기 위한 상설위원회 10개, 비상설위원회 3개다.

표3-민족기록화 제작과 정부 지원 현황²⁴

내용	수량 (점)	제작 기간	전시회 개최 및 기간	점당 제작 지원비	지원금액 (문예진흥기금)	업무 주관처
경제편 1차	30	1973.4~12.30	국립현대미술관 1974.3.16.~26.	120만 원	45,738,000원 (정부 예산 9,370,000 포함)	문공부
경제편 2차	20	1974.5~ 1975.6.30	국립현대미술관 1975.8.12.~26.	130만 원	30,387,354원	문공부
전승편	20	1974.5~ 1975.6.30	국립현대미술관 1975.8.12.~26.	140만 원	33,133,975원	문공부
구국위업편	20	1975.12~ 1976.11.27	국립현대미술관 1976.11.27.~12.12.	130만 원	33,465,717원	문공부
문화편	5	1977.2~ 1978.2.20	없음	350만 원	19,226,771원	문공부
문화편	4	1978.5~ 1979.9.11	없음	350만 원	15,721,962원	문공부
문화편	5	1979.9.10~ 1980.12.19	없음	450만 원	24,500,047원	문예진흥원
총 202,173,826원						

제작추진위원회는 고증과 자문의 역할도 겸했지만 소재와 작가의 선정이 주된 역할이었으므로 위원회는 사학자 중심으로 꾸려졌다.

전승편 제작추진위원회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전승 관련 역사적 사실 중에서 ‘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부터 ‘청산리 전투’까지 20건을 선별하고, 그에 따라 작가를 결정했다.²⁵ 또 작가들이 그려온 30호 크기의 초벌 그림(에스키스)을 검토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여 1974년 월 4일 최

24 이 표는 「민족기록화 제작 예산 집행 현황」(1983, 아르크미술관) 문서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점당 제작비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편), 앞의 책(1988), 198쪽; 한국문화예술진흥원(편), 앞의 책(1993), 205쪽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데, 1997년 아르크미술관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가장 믿을 만하다.

25 「문예진흥사업정보③」, 《문예진흥월보》 1-1(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4), 35~36쪽; 《경향신문》, 1974년 7월 27일.

종 심의를 끝냈다. 작가들은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8월 말까지 작품을 완성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3,4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작가에게 제작비로 140만 원씩이 지불되었으며 그 외에 고증료와 화구(畵具) 구입 지출비로 380여 만 원이 소요되었다.²⁶

민족기록화 제작은 문학, 영화, 전사(戰史) 분야의 일부 사업과 취지를 공유하며 진행되었다. 문예중흥 5개년계획은 국난극복을 보여 준 민족의 슬기와 예지, 역사적 위업, 문화유산을 다양한 표현 매체로 집대성하는 지원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컨대, 『민족문학대계』는 10권을 한 질로 5차 연도까지 50권을 발간하는 사업이었는데, 처음 사업 명칭이 ‘국난극복 민족문학대계 발간’인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²⁷ 『민족문학대계』의 편찬 목적과 개발된 소재는 민족기록화의 전승편이나 구국위업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추진위원 17명 중에 박종화·이병도·유광렬·최영희·김철준·이형석 등은 민족기록화 전승편의 제작추진위원이기도 했다.²⁸

특히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던 『한국전쟁사』의 편찬위원장인 이형석(李炯錫, 1909~1991) 장군은 민족기록화와 『민족문학대계』 사업에 모두 관련한 점이 주목된다.²⁹ 또 민족박물관 설립추진위원 5명 중 한 명이기도 했다.³⁰ ‘국

26 「미술진흥사업」, 《문예진흥월보》 1-3(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4), 12쪽; 《경향신문》, 1975년 5월 16일.

27 『민족문학대계』 추진위원회에서는 소재를 발굴하여 확정했고 그에 따라 편찬위원회에서는 집필 작가를 선정했다. 「국난극복 민족문학대계 발간회의 자료」(197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장).

28 「민족기록화(국국위업편) 제작 경비 지급」(197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장).

29 국방부에서 1964년에 시작한 『한국전쟁사』 편찬은 1967년 제1권을 발간한 이래 작업 착수 14년 만인 1978년에 전9권으로 출간 완료되었다. 6.25전쟁의 발발에서 휴전까지 전선의 모든 전투를 담았다. 문희석, 「발간사」, 『한국전쟁사 1』(한국전쟁사보급중앙회, 1967); 《경향신문》, 1978년 6월 23일.

30 《조선일보》, 1976년 10월 19일.

난을 극복한 민족의 예지와 슬기'는 영화진흥사업의 민족영화 제작에도 주요 테마여서 당시 새마을운동이나 6.25전쟁 관련 대작(大作) 영화가 다수 제작되었다. 군사 영화 제작에도 정확한 사실 재현이 당면 과제였으므로 전사 편찬위원회의 고증을 받아서 촬영해야만 했다.³¹

『민족문화대계』의 내용은 연극이나 영화, TV 드라마로도 제작하여 보급했다. 영화나 드라마 장면이 같은 주제의 문학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참조가 되었던 것처럼 민족기록화의 내용이나 구도 설정에도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족기록화 전승편 제작에는 국방부에서 추진한 전사 편찬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국난을 극복한 민족의 예지와 슬기'는 문화예술 방면 지원사업의 핵심 주제였으며 소재 개발과 고증은 역사-문학-미술-영화 분야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경제편(2차)은 '날로 변모하는 산업 건설상 및 새마을, 약진하는 조국의 밝은 미래상'을 소재로 제작을 의뢰했다. 단, 1961년 이후 1974년 당시까지 완성되었거나 진행 중인 산업에 한정했다. 제작추진위원은 조동필(고대 교수), 정병휴(서울대 교수), 경제기획원 기획국장, 농림수산부 농림기획관, 상공부 종합기획관, 건설부 국토건설기획국장, 문공부 예술국장 등 7명으로 이들은 1974년 5월 작품 소재와 화가를 선정하여 제작을 위촉했다. 경제편(2차)을 그린 화가에게는 1점당 제작비가 130만 원씩 지급되었는데 아무래도 내용을 구성하고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데 전승편보다 용이한 점이 고려되었던 것 같다.³²

1975년에는 문예진흥사업을 심의할 추진위원회는 3개가 줄어든 20개로

31 《조선일보》, 1976년 11월 9일.

32 이후 1975년 구국위업편 작가에게는 160만 원 혹은 200만 원씩(《경향신문》, 1976년 12월 2일) 지급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해마다 편당 제작비가 증액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는 130만 원씩 지급되었다(표3).

운영되었다. 경제편과 전승편 제작추진위원회는 폐지되고 새로운 사업 내용에 맞는 구국위업편 제작추진위원회(14명)가 신설되었다.³³ 전승편 때와 비교하면 이선근(동국대 총장)을 새로 위촉했으며,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를 빼고 문예진흥원 부원장과 문공부 예술국장을 추가한 것을 보면 좀 더 현실적인 구성으로 추진위원회를 보강한 듯하다.

20개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대부분 문예진흥원장이 추천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중에서 5개 위원회의 위원은 문공부가 직접 추천했는데 민족기록화도 그중에 하나였다는 점이다.³⁴ 일찍이 1973년 경제편(1차)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책임졌던 문공부의 추천 방식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적어도 김종필이 국무총리를 지내는 동안(1971~1975)만큼은 문공부가 민족기록화 제작 관리에 기울였던 태도와 관심이 특별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1976년부터는 문예진흥사업 관련 상설위원회를 분야별로 통합하여 총 7개의 지원심의위원회만을 운영했다. 미술지원심의위원회는 장우성, 박득순, 김세중, 황종구, 배길기, 장원훈(사진협회 이사장), 김수근(건축가협회 이사장), 유근준, 서세옥 등 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건축, 평론 분야에서 한 명씩 선정했다.³⁵ 민족기록화 제작 규모가 문예진흥 5개년계획 제3차 연도부터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서 사학자들은 모두 빠지고 미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1977년도의 위원은 장우성, 변종하, 박서보(미술협회 이사장), 김응현(동방연서회장), 황종구,

33 「75년도 문예진흥사업추진을 위한 각종위원회 구성」, 《문예진흥월보》 2-3(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5), 13~16쪽.

34 위의 글. 문공부에서 위원을 추천했던 나머지 위원회 4개는 국학개발, 야외조각 제작, 우수도서 선정, 새노래 부르기 운영(방송을 통한 건전가요 보급) 위원회이다.

35 「76년도 문예진흥 사업계획」, 《문예진흥월보》 3-1(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13~14쪽.

윤영자, 김수근, 김광덕(사진협회 이사장), 이구열(문공부 전문위원)이었다.³⁶ 1978년도에는 각 위원회를 5명 구성으로 더 축소했는데 미술지원심의위원회는 이정성, 오광수, 최덕휴, 이유태, 김응현이 참여했다.³⁷

2) 1977~1980년 문화편 제작

1976년 말 구국위업편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통해 공개된 뒤에도 1967년 〈민족기록화전〉 이래 평론가들이 제기해 온 우려와 비판은 줄어들지 않았다.³⁸ 사업 초기부터 드러난 고증의 어려움, 작가의 무성의한 태도와 노력의 결여, 기록성과 예술적 표현 간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였다.³⁹ 관이 주도하는 문화 정책이 작가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소재의 발굴 지원 역시 작가의 상상력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러한 대중의 평가를 의식한 듯 문화공보부장관은 매년 20점씩 제작해 온 민족기록화는 앞으로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작 건수를 줄이고 충분한 고증을 하겠다고 선언했다.⁴⁰ 많은 숫자를 제작하기보다는 우수한 작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문예진흥원은 구국위업편 다음 순서로 ‘성군치적(聖君治績)’을 주제로 20점을 계획하여 2,000만원의 예산까지 확보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성군치적편의 진행은 초기 단계에서 취소되고,⁴¹ 대신 문화편 1차분 5점을 제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6 「77년도 지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문예진흥월보》 4-1(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7), 38쪽.

37 「이달의 초점」, 《문예진흥월보》 5-4(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8), 29쪽.

38 방근택, 「아쉬운 위정자의 예술식견: 민족기록화전을 보고」, 《동아일보》, 1967년 7월 20일.

39 《조선일보》, 1976년 12월 1일; 《경향신문》, 1976년 12월 2일.

40 《동아일보》, 1976년 12월 15일; 《조선일보》, 1976년 12월 31일.

41 『문예진흥원15년사』에는 1976년에 성군치적편 20점을 제작 의뢰하여 이듬해 완성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문예진흥 5개년계획의 제3차 연도에 해당하는 1976년 연초에 발표한

문화편 1차분의 작가 사례비로 1편당 350만 원이 책정되었다. 작가에게 지급되는 제작비가 경제편(2차) 130만 원, 전승편 140만 원, 구국위업편 13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원액을 대폭 늘려 작품의 질을 담보했다. 그만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요구하는 대책이었다고 판단된다.

3년 동안 문화편의 실제 작품 제작에 참여한 고증위원은 김정기(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장), 최영희(국사편찬위원장), 최순우(국립박물관장), 진홍섭(이화여대 박물관장), 김철준(서울대 교수), 김원용(서울대박물관장) 등 6명이었다.⁴² 고증위원은 각자 한 작품씩을 맡아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그림 소재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여 작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작품 구상을 도왔다(표4). 작가들은 초본 스케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증위원들의 검토를 받고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작품을 완성했다.⁴³ 문화편 제작추진위원은 13명으로 박종화·이병도·이은상·유광렬·유봉영·이선근·한우근·김철준·최영희·이형석·최순우 외에 문교부·문화공보부·문예진흥원의 업무 관련자가 투입되었다.⁴⁴

1977년 문화편 1차분을 제작한 5명은 김태·문학진·정창섭·최대섭·이종

문예진흥원의 예산과 사업 내역에도 성균치적편 제작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공보30년』에는 성균치적편 제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 앞의 책(1988), 198쪽; 「문화예술 대중화에 역점」, 《경향신문》, 1976년 3월 3일 참조.

- 42 「민족기록화(문화편) 고증위원 및 작가 연석 회의비 지급」(197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장) 문서. 진홍섭은 1979년 마지막 해에만 참여했다.
- 43 「1977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세입세출예산서(안)」(197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장) 문서의 미술지원 부분. 고증위원은 각 10만 원의 고증료를 받았으며 '소재원고 및 구도작성'에 6만 원씩을 받았다.
- 44 1977년에는 최창봉(문예진흥원 사무총장), 박용전(문교부 사회교육담당관), 손석주(문화공보부 예술국장)가, 1978년에는 박용전 외에 김영권(문예진흥원 부원장), 유운소(문화공보부 문화예술국장)가 추가되었으며 1979년에는 전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형석 대신 박정인, 윤치오(문화공보부 문화예술국장), 손석주(문예진흥원 부원장)이 참여했다.

상으로 엄선되었다. 문공부는 철저한 작품 제작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이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특성과 우수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여행’ 기회를 제공했다. 정창섭을 제외한 4명은 1977년 7월 28일부터 3주 동안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한문 문화권인 동남아 5개국을 둘러보았다. 외국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시절인 만큼 처음 경험한 대형 박물관과 역사 문화의 유적지는 이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이들은 “어느 나라에 비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문화의 찬란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며, “문화재를 제작한다는 각오”로 그간 미흡했던 민족기록화의 “예술성을 살리는 데 전념”하겠다고 다짐을 했다.⁴⁵

1978년 5월에는 문화편 1차 추가분 4점을 김창락, 박성환, 박득순, 최대섭에게 의뢰했으며,⁴⁶ 1979년에는 2차분 5점을 이종상, 김태, 김충선(金忠善, 1925~1994), 최대섭, 정창섭에게 의뢰했다. 3년 동안 김태·이종상·정창섭은 2점을 그렸으며 최대섭은 매년 참여하여 3점을 완성했다. 애초에 1·2편 10점을 목표로 잡았던 문화편은 4년에 걸쳐 14점 제작으로 완결되었다(표4).⁴⁷

문화편이 완결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성군 치적’에서 ‘문화’로 대상 소재가 변경되기도 했지만, 제작 주관처가 바뀌는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1979년 6월 13일로 민족기록화 제작과 관리 업무는 문공부로부터 문예진흥원으로 완전히 이관되었다. 이전까지 문공부가 민족기록화 제작의 주체이자 최종 의결 기관이었으며 문예진흥원은 문예

45 「민족기록화 제작팀, 동남아순방 귀국방답」, 《경향신문》, 1977년 8월 29일.

46 원래는 ‘김대성과 석굴암’을 1978년 1차 추가분으로 김숙진에게 의뢰했으나 작가 신병으로 제작이 취소되어 4편만을 지원했다. ‘석굴암과 김대성’은 그 이듬해에 이종상에게 제작 의뢰되었다. 「민족기록화 제작상황」(1979.6, 아르코미술관 소장).

47 「문화편」이 1·2편으로 나뉘어 10점 제작된 것으로 기록된 문헌이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문화공보30년』에는 문화편이 9점 제작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5년사』와 『문예진흥원20년사』에는 10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4-민족기록화 문화편 14점 일람표

연 번	추진 시작	작가	완성 연도	제목	고증 위원	1998년 무상 기증 직전의 소장처(마지막 대여처)	현재 소장처 (소유권 이전 기관)
1	1977	김태	1978	황룡사의 조영	김정기	정문연 강당	한중연 도서관
2		이종상	1977	고구려 고분벽화	김원용	국회 헌정자료실	한중연 도서관
3		정창섭	1978	화랑도의 수련	최영희	세종문화회관	한중연 도서관
4		최대섭	1977	고려대장경	김철준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한중연 강당
5		문학진	1978	고려청자	최순우	정문연 강당	한중연 강당
6	1978	김창락	1978	울주반구대암각도	김원용	정문연 도서관 로비	한중연 강당
7		박성환	1978	예성강도(벽란도)	최순우	국회 헌정자료실	한중연 도서관
8		박득순	1978	허준과 동의보감	김철준	중앙공무원교육원	미상 (새마을운동본부)
9		최대섭	1978	만민공동회의 민중대회	최영희	독립기념관 수장고	독립기념관
10	1979	이종상	1979	김대성과 석굴암	진홍섭	국회 헌정자료실	한중연 장서각
11		김태	1979	김정호의 대동여지 도 및 그의 생애	김철준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미상 (새마을운동본부)
12		김충선	1979	해초의 천축구법 활동	김정기	장성문화원	미상 (새마을운동본부)
13		최대섭	1980	화포와 화약을 제조하는 최무선	최순우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한중연 도서관
14		정창섭	1980	정약용과 저술	최영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한중연 강당

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제작을 지원하고 진행 실무를 맡는 형태였다. 따라서 1979년 6월 이후의 민족기록화 제작, 즉 문화편 마지막 2차분 5점의 제작과 당시까지 완성된 민족기록화에 대한 관리·활용 업무는 전적으로 문예진흥원의 몫이 되었다.⁴⁸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1979년 하반기는 사실상 업무 공백 상태가 되어 추진위원 13명, 고증위원 5명을 재위촉하고 2차분의 대

48 「민족기록화 제작 기본계획」(1979.8, 아르코미술관 소장).

상 소재를 확정하는 데 시일이 지체되었던 것이다.

문예중흥 5개년 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딜 당시 문공부는 민족기록화 200점 완성이라는 야심 찬 포부를 세웠지만, 결국 그에 미치지 못하는 총 104점을 끝으로 사업은 1980년에 일단락되었다. 문예진흥원은 업무를 이관받은 후에도 사학자와 추진위원의 자문을 받아 39개의 후보 소재를 집약적으로 선정해 두었는데,⁴⁹ 이를 보면 민족기록화 제작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것에 대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족기록 제작이 사업은 제2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1979~1983) 안(案)을 수립할 때 더 이상 포함되지 못했다.⁵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족기록화를 통해 충족되었던 시대적 요구는 미약해지고 김종필을 필두로 사업 추진의 핵심 인물들이 요직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아울러 다양한 시각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기록적 성격이 강한 대형의 구상화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의 조건에 미흡한 그림으로 여겨졌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Ⅲ.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기록화의 형성 경위

1. 문예진흥원의 민족기록화 대여와 관리

1980년 사업이 완료된 후 민족기록화 159점의 보관과 활용은 문예진흥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대국민 향유를 위한 공공미술이라는 취지로 제작된 민족기록화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보고 즐길 수 있어야 했다.

49 「민족기록화 제작상황」(1979.6, 아르코미술관 소장).

50 《조선일보》, 1979년 2월 13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 혹은 영구 전시하겠다는 언급이 사업 초기부터 정부 측에서 나오곤 했지만, 민족기록화의 영구적인 보관 장소와 활용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강구책으로 전시 시설이 조성될 때까지 정부 기관이나 군부대에 대여 전시하는 방법이 선택되었다.

애초에 보관 장소로 염두에 두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박물관은 그림의 성격이 기관과 딱히 부합하지 않고 전시 공간도 충분치 않았다. 그러한 판단 아래 1975년 경제편(2차) 및 전승편 민족기록화 전시회를 관람한 뒤 김종필 국무총리는 “역작이 많은데 잘 보관했다가 ‘민족박물관’이 건립되면 전시하도록 하라.”고 문공부차관에게 지시했다.⁵¹

미술진흥사업의 하나로 건립 준비 중이던 민족박물관이 예정대로 완성되면 민족기록화를 이곳에 전시·보관하는 쪽으로 사후 관리를 대비하는 듯 보였다. 민족박물관은 여의도 2만 평 부지에 약 200억 원을 들여 10개의 상설 전시관을 갖춘 대형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었다. 문예중흥 5개년계획 첫해인 1974년부터 건축협회에서는 민족박물관 건축 연구를 수행했고 1976년에는 대통령령으로 민족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1983년 완공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⁵² 그러나 기초 설계와 건립 준비 등 계획안 확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고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문예중흥 5개년 기간 안에 구체적인 윤곽을 세우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 사업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1979년 민족기록화 업무 이관에 따라 문예진흥원은 작품 104점을 인계받았다. 1974년에 경제편(1차) 8점을 해당 기관(기업체)에 판매했지만, 그 보

51 《조선일보》, 1975년 1월 29일; 《조선일보》, 1975년 8월 13일. 10개의 상설전시관은 역사관, 민족문화관, 민족생활관, 호국관, 독립관, 송공관, 현대관, 미래관 등으로 계획했다.

52 《동아일보》, 1978년 1월 16일.



그림1-천칠봉, 〈경지정리〉, 1973, 캔버스에 유채, 300호, 새마을운동중앙본부(현재 소장처 미상)

관과 관리는 계속 문예진흥원이 맡고 있었다. 작품을 인계받을 당시에 이미 104점 중에서 100점은 군부대와 공공기관 등 총 14개 장소에 대여 중이었고 나머지 4점은 문예진흥원에서 전시 활용하고 있었다(표5). 그런데 한 가지 연구상의 난점은 1974년 민족기록화의 대여가 시작된 이후 1982년까지는 대여 기관, 작품 내역, 대여 기준 및 방식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1980년 11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중앙청에 걸려 있던 민족기록화 2점을 교체했다는 식의 몇몇 단편적인 신문 기사만을 확인 가능한 정도이다.⁵³ 원래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진 오승우(吳承雨, 1930~2023)의 〈집념〉(경제편 2차)과 박득순(朴得鎔, 1910~1990)의 〈집념〉(경제편 2차)을 김서봉의 〈서울부산간고속도로〉(경제편 1차)와 천칠봉(千七峰, 1920~1984)의

53 《동아일보》, 1980년 11월 24일.

〈경지정리〉(경제편 1차)로 바꾼 것인데(그림1), 박대통령 서거 후 시의에 맞는 내용의 그림으로 교체한 것이다.

민족기록화의 대여 현황은 1983년 11월 문예진흥원이 처음으로 전국의 대여처를 일제히 현장 점검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⁵⁴ 이 실사는 민족기록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작품의 현상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다만 여기에서도 문예진흥원이 인계받은 104점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1967년 제작된 55점은 제외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이 55점에 대한 행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예진흥원은 10일 동안 본원을 제외한 전국 21개 대여처를 방문해서 100점의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21개 대여처는 청와대(경호실), 국회 사무처, 총무처, 관세청, 현충사,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방송공사, 세종문화회관, 어린이회관, 1군단(사령부, 2·12·22사단), 2군단, 수도군단사령부, 육군종합행정학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육군 제7821부대, 육군 제7273부대, 육군 제7010부대, 새마을지도자연수원 등이었다(표5). 이 중에서 육군 제7821부대, 육군 제7273부대, 육군 제7010부대,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1983년 1월 1일로 처음 대여가 시작된 곳이다(표5).

문예진흥원은 1983년 11월 관리 상태 점검 후 몇 가지 원칙을 세워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당시만 해도 기관마다 대여 기간이 달랐고 그 기간이 끝나도 연장을 신청하거나 작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문예진흥원은 남은 대여 기간과 상관없이 1983년 12월 1일로 대여 일시를 일제히 갱신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앞으로 대여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고 문예진흥원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는 남은 대여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각서」를 받았다. 이 「각서」 조항에는 작품의 명제

54 「민족기록화 확인 점검 결과 보고」(1983.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장).

표5-1983년 12월, 1985년 1월, 1998년 1월 문예진흥원의 민족기록화 점검 당시 대여 현황⁵⁵

	대여기관	1983년 11월 현황 (22개 대여처 104점)					1985년 1월 현황 (30개 대여처 95점)					1998년 1월 현황 (27개 대여처 71점)				
		경제	전승	구국 위업	문화	계	경제	전승	구국 위업	문화	계	경제	전승	구국 위업	문화	계
1	청와대(경호실)		2	1		3		2	1		3		2	1		3
2	국회사무처	2	6	3		11	2	6	3		11	2	6	3		11
3	총무처	26	1	7	1	35										
4	관세청			1		1			1		1			1		1
5	현충사	1				1	1				1	1				1
6	1군단(사령부, 2·12·22사단), 2군단		5			5										
7	수도군단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2			2						2				2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		2	6	10	2		2	6	10	1		1	3	5
9	어린이회관	8				8	6				6					
10	육군종합행정학교	2	3			5	2	3			5	1	1			2
11	중앙공무원교육원			1	1	2		1	3	1	5		1		1	2
12	한국방송공사	2		2		4	2		2		4					
13	세종문화회관	2				2			1	1	2			1	1	2
14	육군 제7821부대				3	3				3	3					
15	육군 제7273부대	2				2	(2)				(2)					
16	육군 제7010부대	2	1			3	2	1			3					
17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성남)	1		1	1	3	9		3	1	13	12		1		13
18	문예진흥원			2	2	4				2	2					
19	육군 제5897부대							1			1		1			1
20	육군 제5861부대							1			1					

⁵⁵ 괄호 안의 숫자는 점검 후 반납을 요청하여 미술회관에 보관된 작품이다. 총무처(정부청사관리소)에서 대여해서 후생관과 교육원에 전시했던 민족기록화 35점은 1983년 12월에 문예진흥원에 반납을 요청했으며 이듬해 10월에 반납 완료되었다

	대여기관	1983년 11월 현황 (22개 대여처 104점)					1985년 1월 현황 (30개 대여처 95점)					1998년 1월 현황 (27개 대여처 71점)				
		경제	전승	구국 위업	문화	계	경제	전승	구국 위업	문화	계	경제	전승	구국 위업	문화	계
21	육군 제6105부대							1			1					
22	육군 제1729부대							1			1		1			1
23	육군 제2218부대							1			1		1			1
24	육군 제6950부대							2			2		1			1
25	육군 제7599부대								1		1					
26	한국수출산업공단						2				2					
27	춘천시청						1				1	1				1
2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		1		6					
29	포항철강공업 관리공단						2				2	1				1
30	인천시청						1				1					
31	대우전자						(1)				(1)					
32	서울우유협동조합						(1)				(1)					
33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장성)						(2)				(2)					
34	안동문화원											2				2
35	장성문화원											2			1	3
36	군산문화원											2				2
37	온양문화원											2				2
3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	2
39	인천시문예회관											1				1
40	병무청												1			1
41	독립기념관												4	2	1	7
42	육군 제1862부대												1			1
43	정부기록보존소														1	1
44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1	1
	계	50	20	20	14	104	43	20	18	14	95	30	20	10	11	71

표를 반드시 부착하되 문예진흥원에서 제시한 원제목을 사용해야 하며 대여할 때 제시한 작품의 게시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조건도 포함했다. 다소 엄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품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석된다.

이후 민족기록화의 전체 점검은 매년 연말 무렵에 실시했다. 1984년에는 서면으로 점검 상태를 확인했는데, 1985년 1월 9일의 「민족기록화 확인 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 1년 사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5).⁵⁶ 대여처는 군부대를 중심으로 30개 기관으로 늘어났지만, 대여 작품 수는 95점으로 줄었다. 기관 대부분이 1985년 말까지 대여 기간을 연장했지만, 예컨대 1985년 4월 10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인천시청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육군 제7273부대·새마을장성연수원·대우전자·서울우유협동조합 등은 점검 직후 반납을 신청해서 1985년 1월 9일에는 이미 이곳 소장품 6점이 미술회관에 보관되었다. 그래서 1985년 말에는 미술회관에 전시된 2점을 포함하여 대여 작품은 89점이 되었다.

1987년 11월 말에 시행한 전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 19개 기관에 49점을 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⁷ 1990년 2월에는 69점을 25개 기관에 대여 활용하고 나머지 35점을 문예진흥원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⁵⁸

1983년만 해도 104점 전체가 대여 형태로 활발하게 이용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작품이 대형이다 보니 전시 장소와 여건은 제한적이고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대여가 장기화하는 추세였다. 게다가 1970년대 초의 경제상을 소재로 제작된 경제편 50점은 1990년대의 발전상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작품의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줄고 반환 요청이 늘어나

56 「민족기록화 확인 점검 결과보고서」(1985.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장).

57 「민족기록화 확인 점검 결과보고」(1987.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장).

58 「97년도 민족기록화 점검 결과 보고」(1998.1, 아르코미술관 소장).

표6-1998년 12월 문예진흥원으로부터 민족기록화를 무상 기증받은 기관 및 내역

	이관 기관	수량	내역	문화편 내역
1	독립기념관	18점	구국위업편 10, 전승편 7, 문화편 1	〈만민공동회의 민중대회〉
2	전쟁기념관	23점	구국위업편 10, 전승편 13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0점	문화편 10	〈표1〉 참조
4	새마을운동중앙회	44점	경제편 41점, 문화편 3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및 그의 생애〉, 〈허준과 동의보감〉, 〈해초의 천축구법 활동〉
5	현충사	1점	경제편 1	
계 96점				

는 형편이었다. 점차 미술회관에 보관해야 하는 작품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문예진흥원은 자체 수장고의 부족이 당면 문제로 떠올랐고 작품의 안전 관리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보존 시설이 요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한 결과 문예진흥원은 관련 기관에 작품을 기증하여 영구 보존하고 그림 소재와 관계있는 기업체에 작품을 판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⁵⁹

이러한 계획안은 대상 기관(기업)의 인수 의사 타진, 이관 방식 협의, 이관 장소의 실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얻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정문연, 새마을운동중앙회, 현충사 등 5개 기관만이 무상으로 작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즉 무상으로 작품을 기증받는 데 동의함으로써 마침내 문예진흥원은 1998년 12월 민족기록화 96점을 인계하는 것으로 작품 처리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했다(표6).⁶⁰ 5개의 기관

59 「민족기록화 작품 활용 계획(안)」(1990.2, 아르코미술관 소장). 경제편의 경우 작품의 소재 대상 기업체는 모두 작품 구입을 거절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도 작품의 인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60 박혜성, 앞의 논문(2003), 58~59쪽; 「민족기록화 이관 결과보고」(1998.12, 아르코미술관

은 작품의 내용과 기관 성격이 서로 부합하고 보관 및 전시 시설이 양호하며 향후 작품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정되었다. 104점 중 나머지 8점은 1974년에 해당 기업체에 이미 판매된 작품으로 문예진흥원은 그동안 관리된 만을 갖고 있었다(표2). 따라서 8점은 소유권을 가진 각 기업체에 반환하는 형식으로 이관되었다.⁶¹

2.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기록화의 형성과 이동

1983년 11월 민족기록화의 첫 현장 실사 당시 정문연에는 10점이 소장되어 있었는데(표5), 경제편 2점, 구국위업편 2점, 문화편 6점으로 이루어진 구성은 지금과 달랐다(표7). 당시 정문연의 식당, 도서관, 강당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작품 12점이 모두 도서관, 강당, 장서각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전시 장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⁶² 예외라면 천칠봉의 〈경지정리〉는 식당 현관에 걸려 있었다(그림1).

이 10점의 민족기록화는 문예진흥원의 방침대로 12월 1일로 일괄 대여 기간을 갱신하여 1년 단위로 연장 신청을 계속해 나갔다. 그래서 1988년 11월 30일까지 정문연의 민족기록화는 1983년과 같은 내역으로 같은 장소에 걸려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려대장경〉은 1986년 7월 9일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대여해 간 상태였다.

이후 9점을 전시하고 있던 정문연은 무상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인 1998년

소장).

61 「민족기록화 이관에 따른 기관 판매작품(8점) 반환」(1998. 11, 아르코미술관 소장).

62 정문연 강당 실내에 걸려 있던 〈황룡사의 조영〉과 〈고려청자〉는 2013년 강당 보수공사 때 철거되어 이듬해 9월 보존 처리를 마치고 각각 도서관과 강당 계단참으로 장소를 바꾸어 게시되었다.

표7-한중연에 전시 이력이 있는 1970년대 제작 민족기록화의 대여 장소 변천

분야	작가	제목	완성 연도	1983년 당시 전시 장소	대여 장소 변천
경제	천철봉	〈경지정리〉	1974	식당 현관	1980년 중앙청→1981년 10월 정문연 식당 입구→1992년 국회사무처→문예진 흥원→새마을운동중앙본부(현재 미상)
	정영렬	〈팔당수력발전소〉	1975	도서관 로비	1981년 8월 정문연 도서관→ 새마을운동중앙본부(현재 미상)
구국 위업	이종상	〈태종무열왕〉	1976		1981년 8월 정문연 도서관→ 국회사무처→전쟁기념관
	이의주	〈최익현 선생의 유해환국〉	1976		1981년 8월 정문연 도서관→독립기념관
문화	김태	〈황룡사의 조영〉	1978	강당 내부	1978년 5월 정문연 강당 내부→ 2014년 9월 이후 한중연 도서관
	이종상	〈고구려 고분벽화〉	1977	강당 복도	1978년 5월 정문연 강당→ 1992년 국회사무처→1998년 정문연
	정창섭	〈화랑도의 수련〉	1978		1978년 5월 정문연 식당→ 1981년 10월 총무처→1984년 세종문화 회관→1998년 정문연
	최대섭	〈고려대장경〉	1977	강당 로비	1978년 5월 정문연 강당→ 1986년 정부기록보존소→1998년 정문연
	문학진	〈고려청자〉	1978	강당 내부	1978년 5월 한중연 강당 내부→ 2014년 9월 이후 한중연 강당 계단참
	김창락	〈울주반구대 암각도〉	1978	도서관 로비	1981년 5월 정문연 도서관→ 현재 한중연 강당
	박성환	〈예성강도〉	1978		1981년 5월 정문연 도서관→ 1992 국회사무처→1998년 정문연
	이종상	〈김대성과 석굴암〉	1979		미술회관→1992년 국회사무처→ 1998년 정문연
	최대섭	〈화포와 화약을 제조하는 최무선〉	1980		1982년 제7821부대→1990년 인천시립 박물관→1998년 정문연
	정창섭	〈정약옹과 저술〉	1980		1982년 제7821부대→1990년 인천시립 박물관→1998년 정문연



그림2-정영렬,
〈팔당수력발전소〉,
1975, 캔버스에 유채,
300호, 새마을운동중앙
본부(현재 소장처 미상)



그림3-이의주,
〈최익현 선생의 유해
환국〉, 1976, 캔버스에
유채, 300호, 독립기념관

에는 〈팔당수력발전소〉(경제편 2차)(그림2), 〈최익현 선생의 유해환국〉(구국위업편)(그림3), 〈황룡사의 조영과 벽화〉·〈고려청자〉·〈울주반구대암각도〉(문화편) 등 5점만을 대여하고 있었다. 〈경지정리〉, 〈태종무열왕〉, 〈예성강도〉, 〈고구려고분벽화〉를 1992년 국회사무처에서 대여해 갔기 때문이다.

무상 소유권 이전을 협의할 때 정문연이 내건 조건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문화편에 한정하여 기증받는 것이었다. 이에 독립기념관에서 희망하는 〈만민공동회의 민주대회〉를 제외한 13점을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제안받았다. 그러나 정문연 측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있던 〈허준과 동의보감〉(그림4), 장성문화원에 있던 〈혜초의 천축구법활동〉,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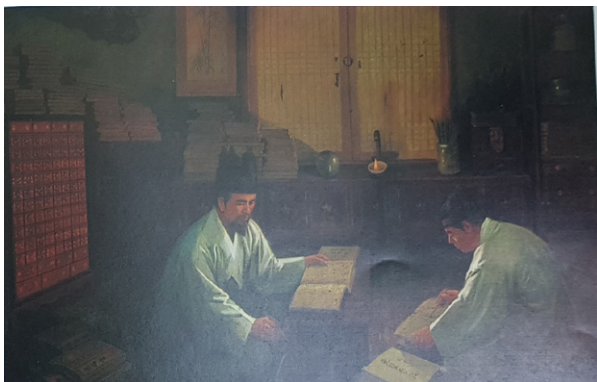


그림4-박득순,
〈허준과 동의보감〉,
1978, 캔버스에 유채,
300호,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현재 소장처 미상)



그림5-윤중식,
〈8.15해방〉, 1967,
캔버스에 유채,
10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6-김서봉,
〈구월산지구 유격대〉,
1967, 캔버스에 유채,
10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현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있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및 그의 생애〉는 수증 불가 의사를 밝혀 10점만을 기증받았다.⁶³ 아마도 전시 공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짐작된다. 그래서 나머지 문화편 3점은 1998년 새마을 운동본부로 소유권과 함께 이관되었으나 현재 소장처가 분명치 않다.

현재 한중연의 민족기록화 구성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1967년에 제작된 55점 중 〈8.15해방〉(그림5)과 〈구월산지구 유격대〉(그림6) 2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⁶⁴ 이 2점은 55점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소장처를 알 수 있는 작품인데 1979년 감사원으로부터 정문연이 기증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⁵ 아무튼 1967년 작품을 제외한 민족기록화 10점의 소유권이 정문연에 이전되어 작품 이관이 완료된 시점은 1998년 11월 27일이다.⁶⁶

정문연은 1978년 6월 30일에 강당에서 개원식을 열었다. 천장이 높고 넓은 벽면을 가진 강당은 지금도 민족기록화를 걸 만한 최적의 장소이다. 정문연 측은 개원식에 앞서 1978년 5월 26일에 〈고구려 고분 벽화〉(그림7), 〈황룡사의 조영〉(그림8), 〈고려대장경〉(그림9), 〈고려청자〉(그림10), 〈화랑도의 수련〉(그림16) 등 5점을 대여해서 강당 내부와 복도, 식당에 전시하고 하객을 맞았다. 1967년 작인 〈8.15해방〉과 〈구월산지구 유격대〉 2점도 개원 이듬해에 감사원에서 정문연으로 옮겨서 강당 1층 서편과 동편에 각각 게시

63 「민족기록화 이관 작품 조정 통보」(1998.7, 아코미술관 소장).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시절 작성된 내부 자료인 「귀중서화목록」, 『액자류 및 자기류 대장』(한국정신문화연구원), 참조. 이 두 작품은 2023년에 보존 처리를 마쳤다.

65 「귀중서화목록」, 『액자류 및 자기류 대장』(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그 외에 1967년 민족기록화 55점이 경복궁미술관에서 전시가 끝난 뒤 보관된 장소, 이후 전시 활용된 이력 등을 추적할 만한 근거 자료를 찾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66 《경상일보》, 2018년 10월 13일; 1998년 10월 2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명의의 「수증서(작품인수증)」(1998, 아코미술관 소장). 한중연 측에 등록된 자산 취득일은 1998년 11월 27일이다.



그림7-이종상,
〈고구려 고분벽화〉, 1977,
종이에 채색, 3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8-김태,
〈황룡사의 조영〉, 1978,
캔버스에 유채, 3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9-최대섭, 〈고려대장경〉, 1977,
캔버스에 유채, 3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10-문학진, 〈고려청자〉, 1978,
캔버스에 유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11-김창락, <울주반구대 암각화도>, 1978, 캔버스에 유채, 3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12-박성환, <예성강도>, 1978, 캔버스에 유채, 3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되었다.⁶⁷ 두 작품은 지금도 강당 복도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동이 쉽지 않은 1000호짜리 대작인 점을 고려하면 1979년 이래 한중연 밖을 나가지 않고 강당에 줄곧 게시되었다고 본다. 정문연 최초 대여 작품 중에 <고려대장경>은 1986년 정부기록보존소에 대여되었고 <고구려 고분벽화>는 1992년에 국회사무처가 대여해 갔기 때문에⁶⁸ 1998년 문화편 10점을 무상으로 기증받을 때 정문연은 두 기관으로부터 작품을 인계받았다.

정문연의 도서관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장서각 도서를 위탁 기증받아 1981년 6월 30일에 개관식을 거행했지만, 건물은 그전인 1980년 6월에 이미 신축되었다.⁶⁹ <울주반구대 암각화도>(그림11), <예성강도>(그림12), <태종무열왕>, <최익현선생의 유해 환국>, <팔당수력발전소> 등 5점은 도서관 신축에 맞추어 1981년 5월 7일에 대여해서 도서관 로비에 걸렸던 작품으로 파악된다. 그후 <예성강도>는 <고구려고분벽화>와 함께 국회사무처에 대여되었

67 「귀중서화목록」, 『액자류 및 자기류 대장』(한국정신문화연구원).

68 1983년 일제 점검 당시 정문연의 전시 장소가 건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전시 장소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1992년 11월 20일에 국회헌정자료실로 대여 장소가 변경되었다.

69 한국학중앙연구원(편), 『한국학중앙연구원 30년사』(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40~242쪽; 한국학중앙연구원(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40년사』(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3), 77~81쪽.



그림13-최대섭,
〈화포와 화약을 제조하는 최무선〉,
1980, 캔버스에 유채, 3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14-정창섭, 〈정약용과 저술〉,
1980, 캔버스에 유채, 3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15-이종상, 〈김대성과 석굴암〉,
1979, 종이에 채색, 3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16-정창섭, 〈화랑도의 수련〉,
1977, 캔버스에 유채, 3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다가 1998년에 함께 정문연으로 돌아왔다.

종합해 보면 <황룡사의 조영>과 <고려청자>, <울주반구대암각도> 등 3점은 한중연에 들어온 이래 한 번도 다른 곳으로 대여 나가지 않고 40년 넘게 줄곧 한중연에 전시된 작품으로서 눈길을 끈다. 한편, 문화편은 아니지만 <팔당수력발전소>(경제편)와 <최익현 선생의 유해한국>(구국위업편)도 도서관이 개관한 뒤 1981년 8월 12일 자로 도서관 로비에 대여 전시되기 시작했던 작품이다.

민족기록화의 주요 활용처는 군부대였는데 문화편도 예외는 아니었다. <화포와 화약을 제조하는 최무선>(그림13)과 <정약용과 저술>(그림14)은 1982년 육군 제7821부대에 대여 나갔다가 인천시립박물관으로 함께 이동하여 1998년에 정문연으로 최종 이관될 때까지 그곳에 전시되었다.

<김대성과 석굴암>(그림15)은 문예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내 전시에 활용했던 작품 중 하나이다. 1979년 완성 직후부터 문예회관에 오래 게시되었으며 1992년 국회사무처에 대여되었다가 1998년에 정문연으로 최종 소장되었다.

<화랑도의 수련>(그림16)은 1982년부터 2년간 총무처에서, 1984년부터는 문화편 작품을 희망한 세종문화회관에서 빌려 가 1998년까지 같은 장소에 걸려 있다가 정문연에 인수되었다. 그 밖에 한중연 소장품은 아니지만, 문화편 작품인 최대섭의 <만민공동회의 민중대회>는 한국직업관리공단에서 1980년 11월 22일에 처음 대여해 갔는데, 1983년 2월부터는 성남의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3년 후에는 독립기념관으로 대여 장소가 변경되었다가 1998년 독립기념관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또 <김정희의 대동여지도 및 그의 생애>(그림17), <허준과 동의보감>, <해초의 천축구법 활동>은 1998년 새마을운동본부가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마지막 대여 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중앙공무원교육원, 장성문화원으로부터 각각 작품을 이관받았다.



그림17-김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및 그의 생애〉, 1980,
캔버스에 유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현재 소장처 미상)

이처럼 민족기록화는 주로 1년 단위의 대여를 원칙으로 군부대와 공공기관의 전시를 통해 활용되었다. 특정 작품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요청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 민족기록화의 게시 장소는 잦은 변화가 없는 편이었다.

IV.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민족기록화의 내용과 특징

민족기록화 문화편 14점은 9명의 화가가 생산했는데 화가마다 민족기록화를 제작한 편수는 차이가 있다. 문화편을 제일 많이 그린 화가는 최대섭으로 〈고려대장경〉, 〈화포와 화약을 제조하는 최무선〉, 〈만민공동회의 민중대회〉 등 3점을 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민족대표의 독립선언〉(1976)을 그렸다. 〈예성강도〉를 그린 박성환은 이 그림이 유일한 민족기록화이지만, 문학진은 〈고려청자〉를 포함하여 6점을 제작했다. 〈황룡사의 조영〉·〈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및 그의 생애〉를 그린 김태와 〈화랑도의 수련〉·〈정약용과 저술〉을 그린 정창섭은 이 외에도 5점을 더 제작해서 총 7편의 민족기록화를 남겼다.

한중연 소장 문화편 10점의 소재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골고루 포

진되어 있다. 문화편 제작에는 철저한 고증을 제공하겠다는 주최 측의 공언대로 작품 소재에 가장 적합한 고증위원을 선정해서 한 명이 한 작품씩을 전담하게 했다. 고증위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소재 선정의 이유와 의미를 작성하여 작가가 내용을 구성하고 구도를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들테면 한국미술사 연구자 김원용 교수는 『고구려 벽화고분』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종상의 <고구려 고분 벽화>(1977)를 담당했다(그림18). 이 그림은 노화가가 쌍영총(雙楹塚) 현실(玄室) 동벽에 ‘공양행렬도’를 그리는 모습이다.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 쌍영총 현실을 바라본 각도와 시점, 기둥의 형태, 행렬도의 모습은 <평남 용강 쌍영총 현실 투시도>를 찍은 일제강점기 유리원판 사진과 거의 일치한다(그림19). 1964년부터 고구려 고분벽화를 탐구했던 이종상은 이를 참조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38세에 민족기록화 제작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종상은 대학 시절 동양화로 전향하면서 한국의 채색화 전통을 찾다가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려불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건축학과 해부학 강의를 들으면서 고분의 구조와 벽화와 상관성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물들의 복식은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복식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발이 여러 개 달린 둥근 벼루는 실제 출토된 백제나 신라의 벼루와 흡사하여 삼국시대의 출토 유물이 잘 고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종상의 <김대성과 석굴암>(1978)은 완성된 석굴암의 조형미를 보여주기보다 제목이 시사하듯이 김대성이 우수한 신라의 건축과 조각 기술을 동원하여 석굴암 조성을 지휘한 사실을 부각하는 데 주력한 그림이다(그림15). 일제강점기 유리 원판 사진 중에는 석굴암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해체하여 놓은 사진도 있어,⁷⁰ 이종상은 이러한 기록 사진에 영감을 받았을 가능

70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과주: 돌베개, 2013).



그림18-이종상, <고구려 고분 벽화>, 1977, 종이에 채색, 3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19-〈평남 용강 쌍영총 현실 투시도〉

성이 있다. 이종상은 착실한 연구와 고증을 거쳐 고대 문화유산이 탄생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종상이 문화편 두 점 이전에 완성한 <광개토 대왕의 영토확장>(전승편, 1975)과 <태종무열왕>(구국위업편, 1976)의 강렬한 채색과 거친 분위기와 비교하면, 얇은 채색의 사용으로 밝고 담백한 분위기를 표출한 것은 소재에 따라 화풍의 변화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김창락의 <울주반구대 암각도>(1978)는 고대 조각미술의 발달을 보여 주는 취지에서 선정된 소재의 그림이다(그림11). 반구대 암각화는 1971년 말에 처음 발견되어 1974년에야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당시로서는 한국 고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소재였다. 반구대 주변의 형세는 지금과 유사하지만, 건너편의 커다란 고목 배치는 그 앞에서 의식을 치르는 선사인들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설정으로 보인다.

<황룡사의 조영>(1978)을 그린 김태는 1931년 함남 홍원 출생으로 1960·70년대 한국화단에서 유행하던 비구상미술(앙포르멜)을 따르지 않고 철저한 관찰과 사실적 표현을 통해 풍경, 인물, 정물의 형상을 탐구한 작가였다. 김태의 회화 경향은 민족기록화와 매우 부합되었는지 누구보다 민족기록화를 많이 남겼다. 1967년 <반공포로석방>를 시작으로 <신진자동차>(1973), 이

성계의 지휘하에 고려군이 동녕부의 산성을 공격하는 〈동녕부 오라산성의 공함〉(1975), 김종서 장군 지휘하에 두만강 유역에서 여진족을 토벌하는 〈육진개척〉(1975), 임진왜란 때 함안에서 강을 건너는 왜군을 토벌하는 홍의장군 곽재우의 전투 장면을 그린 〈홍의장군 곽재우〉(1976) 등이 있다.

신라를 대표하는 호국사찰을 그린 〈황룡사의 조영〉은 구층목탑을 중심으로 금당과 강당으로 추정되는 주요 건물과 회랑을 짓는 수많은 인물군이 구체적인 작업 공정에 따르는 광경을 담았다(그림8). 화면의 중심은 각종 장비가 있는 작업대에 모여 설계를 펼치고 논의하는 현장 책임자들이다. 그 주변으로 도끼, 대패, 망치, 정 등으로 목재를 다듬는 장인들, 소달구지에 기와를 실어 옮기거나 지붕에 소용되는 흙과 목재를 나르는 일꾼, 석재를 다듬는 석장(石匠), 끌과 망치로 목재를 재단하는 목장(木匠), 나무로 가설된 비계(飛階) 위에서 작업하는 인물, 단청을 칠하는 단청장 등 각자 맡은 공역에 열중한 장인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사실감 있게 표현되었다.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공사 현장의 분위기가 살아 있다.

특이점이라면 진흥왕의 황룡사 창건(569)과 선덕여왕의 구층목탑 건립(643)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한 화면에 교차시킨 것이다. 금당과 강당, 구층탑이 동시에 건립 중인 모습은 사실과 어긋나지만, 구층탑 건설 장면도 추가하여 호국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황룡사의 조영〉을 고증한 사람은 김정기였지만, 1976년에 황룡사 발굴조사사업의 지도위원 중의 한 사람이던 최영희를 포함한 고고학의 김원용, 불교미술사의 진흥섭과 황수영 등 전문학자의 조언이 고증위원과 작가들이 모두 모인 여러 차례의 연석회의를 통해 참조되었을 것이다(그림20). 비록 당시의 고증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오류도 있겠지만 1970년대 한국 학계가 이룩한 사학, 고고학, 미술사 등의 인문학적 성과가 회화로 재현되었다는 점에서 민족기록화가 지닌 시대적인 가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20-김태, 〈황룡사의 조영 중간 제작 과정〉, 1977.11.17. 촬영

정창섭의 〈화랑도의 수련〉(1978)은 특정 화랑을 그렸다가보다 화랑도가 기마 훈련을 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그림16). 화랑의 관모 형태와 장식 꽃이, 허리띠, 화려한 각종 마구(馬具)와 장니(障泥) 등은 신라의 공예 미술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다.

최대섭의 〈고려대장경〉(1977)은 대장경을 제작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묘사한 그림이다(그림9). 화면 중앙에는 판각을 총괄하는 각수장과 판각된 경판의 글자를 대교(對校)하며 오류를 정정하는 고승이 서 있고, 오른쪽에는 목판에 올릴 경전을 정서하는 필사자와 필사된 경전 내용을 검토하는 이들이 그려져 있다. 왼쪽에는 각수장이 필사된 경전을 목판에 판각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대장경 제작에 중심이 되는 경전 필사, 경판 판각, 경판의 대교와 감수로 이어지는 과정을 화면 전면에 배치하고 원근법을 이용해 경판을 쫓는 판가(板架)와 불상이 안치된 불단, 우측 벽의 불화 등을 깊이감 있는 구도 안에서 표현했다. 실내를 비추는 부드러운 햇살이 대장경 제작이라는 불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침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상승시킨다. 작품 제작의 중간 과정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고증위원의 의견을 받아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21).



그림21-최대섭, <고려대장경 중간 제작 과정>, 1977.11.17. 촬영

그림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고려대장경이 봉안된 해인사의 장경판전(藏經板殿)으로 추정된다. 역사적으로 고려대장경은 강화도 대장도감(大藏都監)과 남해분사도감(南海分司都監) 등에서 판각했다고 알려졌지만, 기록화 제작 당시에는 해인사 장경판전 판가에 꽂힌 경판의 이미지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으므로, 이 그림에도 해인사의 장경판전이 고려대장경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적극 사용되었다.

최대섭의 또 다른 작품 <화포와 화약을 제조하는 최무선>(1980)은 비법이 적힌 책을 참조하여 화약 제조에 힘쓰는 최무선을 그렸다(그림13). 한쪽 구석에는 술병과 잔이 놓인 상을 배치해서 화약 제조가 고되고 지남한 과정이었음을 암시했으며, 어둡고 짙은 채색으로 무게감 있게 표현한 분위기는 최무선의 깊은 고민을 대변하는 듯하다.

문학진의 <고려청자>(1978)는 기형을 성형하고, 문양을 상감하며, 유약을 입혀 말리고, 가마에 굽는 도자기 제작의 각 단계가 잘 나타나 있다(그림10). 도자기 연구에 전문가인 최순우가 고증을 맡았는데 매병(梅瓶), 죽순형 주자(注子), 정병 형태의 청자 등 고려시대 상감청자의 특징적인 기형이 잘 반영되었다.



그림22-강진 다산초당
사진

박성환의 〈예성강도〉(1978)는 황해도를 흐르는 대표적인 강을 제목으로 했지만, 예성강을 따라 개경으로 통하는 교통로에 위치한 국제적인 항구인 벽란도(碧瀾渡)를 묘사한 그림이다(그림12). 14점 문화편이 주로 역사 인물, 그들이 성취한 업적, 한국이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을 소재로 했지만,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는 장소성을 강조한 소재인 점에서 차별된다. 벽란도를 그릴 작가로는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1949년 월남하기까지 그곳에서 활동한⁷¹ 박성환이 가장 적임자였을 것이다. 고증위원인 최순우 역시 개성 출신이었다. 박성환은 초기에 몰두했던 인상주의 화풍을 써서 빛을 머금고 있는 듯한 잔잔한 푸른 색조로 벽란도 항구를 분위기 위주로 재현했는데 다른 민족기록화와는 무척 다른 화풍이어서 눈길을 끈다. 강변에 정박한 크고 작은 무역선에 시선이 모이도록 구도를 잡고, 짐을 내려 소달구지에 싣는 고려와 외국 상인들은 스케치풍의 필선으로 대략의 형태만 암시했다. 사실적 재현과 극적인 효과를 의도적으로 멀리한 태도가 엿보이는데 이는 사실 고증이 어려운 고려시대의 복식과 풍습 표현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해석된다.

문화편 14점 중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그림이 2점뿐인 것은 아마도 연차적

71 리우식, 「박성환(1919-2001) 회화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0) 참조.

으로 민족기록화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창섭의 〈정약용과 저술〉(1980)은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이 제자들을 동원하여 그의 저서를 편집하고 앞뜰에 서서 사색하는 모습”이라고 도록에 설명되어 있다(그림14). 다산 초당의 외관(기단, 칸수), 그 옆의 방지(方池)와 가산(假山) 등은 현실 사진과 매우 흡사하다(그림22). 배경 장소가 다산 초당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석양빛이 들어오는 초가을 어느 날 사랑채 앞에서 사색에 잠긴 한 사대부를 그린 평범한 인물화로 인식할 것 같다. 정창섭은 다른 화가들처럼 주어진 제재를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시각화하지 않고 『여유당전서』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긴 정약용의 학자적 인물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려 했다고 해석된다.

V. 맺음말

추상미술이 본격적으로 꽃피우던 1960~1970년대에 사실주의 화풍의 공공미술이 대량 생산된 점은 이 시기 화단의 특별한 현상이다. 10여 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에 300·500·1000호의 대형 화면의 구상화 159점을 제작한 성과를 낸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중연에 소장된 민족기록화 12점은 1967년에 제작된 55점 중에서 유일하게 행방을 알 수 있는 윤중식의 〈8.15해방〉과 김서봉의 〈구월산지구 유격대〉 2점과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작된 문화편 14점 중 1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7년 문화공보부에서 시작한 민족기록화 제작 사업은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의 미술지원 사업에 ‘우선지원사업’으로 편입되어 5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 1979년 이 사업은 문예진흥원으로 완전히 이관되었으며, 문화편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된

1980년 이후에는 기관이나 군부대에 ‘대여’ 형식을 통해 작품을 관리하고 활용했다.

한중연은 1978년 개원 초창기부터 민족기록화를 대여해서 전시했다. 개원식을 거행했던 강당의 실내와 복도, 식당을 장식하기 위해 5점을 빌렸고, 1980년에 신축된 도서관에는 5점을 대여해서 전시했다. 지금은 문화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1983년 문예진흥원이 처음으로 실시한 민족기록화 대여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 한중연은 경제편 2점(천철봉의 〈경지정리〉, 정영렬의 〈팔당수력발전소〉)과 구국위업편 2점(이종상의 〈태종무열왕〉, 이의주의 〈최익현 선생의 유해 환국〉), 그리고 문화편 6점을 전시하고 있었다.

한중연이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한중연 밖으로 대여된 이력 없이 강당과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그림이 5점(〈8.15해방〉, 〈구월산지구 유격대〉, 〈황룡사의 조영〉, 〈고려청자〉, 〈울주반구대 암각도〉)에 이를 정도로 대형의 민족기록화는 전시 작품의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1998년 한중연은 문예진흥원으로부터 문화편 10점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7년에서 1980년까지 진행된 문화편은 이전의 경제편, 전승편, 구국위업편 결과물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작가들에게 동남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구 여행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제작 편수를 줄이고 작가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를 대폭 올렸으며 고증위원 한 명이 한 작품을 전담하도록 역할 비중을 늘렸다. 그 결과 민족기록화 문화편은 이전에 비해 고고학, 건축, 복식, 공예미술 등 당시에 축적된 인문학적 연구 성과가 이전의 민족기록화에 비해 시각적으로 잘 재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1977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세입세출예산서(안)」(197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장)의 미술지원 부분.
- 「97년도 민족기록화 점검 결과 보고」(1998.1, 아르코미술관 소장).
- 「국난극복 민족문화대계 발간회의 자료」(197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장).
- 「귀중서화목록」, 『액자류 및 자기류 대장』(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민족기록화 이관 결과보고」(1998.12, 아르코미술관 소장).
- 「민족기록화 이관 작품 조정 통보」(1998.7, 아르코미술관 소장).
- 「민족기록화 이관에 따른 기관 판매작품(8점) 반환」(1998.11, 아르코미술관 소장).
- 「민족기록화 작품 활용 계획(안)」(1990.2, 아르코미술관 소장).
- 「민족기록화 작품 활용 계획(안)」(1990, 아르코미술관 소장).
- 「민족기록화 제작 예산 집행 현황」(1983, 아르코미술관).
- 「민족기록화 제작상황」(1979.6, 아르코미술관 소장).
- 「민족기록화 제작 기본계획」(1979.8, 아르코미술관 소장).
- 「민족기록화 확인 점검 결과 보고」(1983.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장)
- 「민족기록화 확인 점검 결과보고」(1987.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장).
- 「민족기록화 확인 점검 결과보고서」(1985.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장).
- 「민족기록화(국국위업편) 제작 경비 지급」(197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장).
- 「민족기록화(문화편) 고증위원 및 작가 연석 회의비 지급」(197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장).
- 「수증서(작품인수증)」(1998, 아르코미술관 소장).

2. 논저

- (재)5.16민족상(편), 『민족기록화전』, 서울: 경복궁미술관, 1967.
- 김재수, 「현대 역사화에 대한 반성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30, 2011, 255~276쪽.
- 김현화, 「박정희 정부의 문예진흥정책과 현대미술」, 『미술사논단』 42, 2016, 131~159쪽.
- 리우식, 「박성환(1919-2001) 회화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문화공보부(편), 『월남전 기록화 전시회』,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72.
- 문화공보부(편), 『민족기록화 도록(경제편)』,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73.

문화공보부(편), 『민족 기록화(전승편·경제편)』,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75.

문화공보부(편), 『문화공보30년』, 서울: 문화공보부, 1979.

문화공보부(편), 『민족기록화(구국위업편)』,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76.

문희석, 「발간사」, 『한국전쟁사 1』, 한국전쟁사보급중앙회, 1967.

박영택, 「박정희 시대의 문화와 미술」,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5, 2005, 207~241쪽.

박혜성, 「1960-70년대 민족기록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안인기, 「박정희 시대의 민족주의와 미술의 변화에 대한 연구」, 『예술교육연구』 9-3, 2011, 33~44쪽.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4, 1998, 207~241쪽.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파주: 돌베개, 2013.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 7, 1998, 83~106쪽.

정갑영, 『한국문화정책 형성과정과 김종필의 역할 연구: 민족문화 이념을 중심으로』,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정영목, 「한국 현대 역사화: 그 성격과 위상」, 『조형』 20, 1997, 58~78쪽.

조기쁨, 「전쟁 주제의 민족기록화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채효영, 「박정희 정권의 민족 정체성과 민족기록화 사업: 《구국위업편》, 《전승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와 예술』 7, 2010, 68~92쪽.

한국문화예술진흥원(편), 『문화예술진흥백서 1981~1985』,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5.

한국문화예술진흥원(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5년사』,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한국문화예술진흥원(편), 『문예진흥원20년사』,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한국학중앙연구원(편), 『한국학중앙연구원 30년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40년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3.

3. 기타

「75년도 문예진흥사업추진을 위한 각종위원회 구성」 《문예진흥월보》, 2-3(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5), 13~16쪽.

「76년도 문예진흥 사업계획», 《문예진흥월보》 3-1(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1314쪽.

「77년도 지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문예진흥월보》 4-1(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7), 38쪽.

「문예중흥 오개년계획 개요», 《문예진흥월보》 1-1(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4), 10-15쪽.

「문예진흥사업정보③», 《문예진흥월보》 1-1(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4), 35~36쪽.

「미술진흥사업», 《문예진흥월보》 1-3(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4), 12쪽.

「이달의 초점», 《문예진흥월보》 5-4(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8), 29쪽.

「진흥원일지», 《문예진흥월보》 1-3(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4), 53쪽.

박영남, 「민족기록화 10년의 채점표», 《계간미술》, 1979년 가을호, 167~175쪽.

아르코예술기록원 생존미술가 구술채록 DA-Arts(2008 <https://www.daarts.or.kr>).

조성길, 「문예진흥원의 운영방향과 사업», 《문예진흥월보》 1-1(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4), 6~9쪽.

《경상일보》. 《경향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국문초록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에 소장된 민족기록화 12점은 1967년에 제작된 55점 중에서 유일하게 행방을 알 수 있는 윤중식의 <8.15해방>과 김서봉의 <구월산지구 유격대> 2점과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작된 문화편 14점 중 1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공보부에서 시작한 민족기록화 제작사업은 1979년 문예진흥원으로 완전히 이관되었으며 이 사업이 종료된 1980년 이후에는 문예진흥원이 '대여'라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관리와 활용을 전담했다. 한중연은 1978년 개원식을 거행했던 강당과 1980년에 신축된 도서관을 장식하기 위해 처음 민족기록화를 대여했다. 한중연에 문화편만 전시되었던 것은 아니며 초기에는 경제편 2점과 구국위업편 2점도 전시되었으며, 그 수량은 변동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1998년 문예진흥원으로부터 문화편 10점의 소유권을 무상 기증 형태로 이전받은 시점에는 문화편 5점만을 전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점은 다른 대여 기관에서 인계받았다.

투고일 2024. 9. 20.

심사일 2024. 10. 30.

게재 확정일 2024. 11. 19.

주제어(keywords) 민족기록화(Korean heritage painting), 문예중흥정책(The culture and arts revival policy), 한국문화예술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Abstract

Culture and Arts Revival Policy and Korean Heritage Paintings fro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ark, Jeong-hy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houses a collection of 12 Korean heritage paintings. The series comprises two works created in 1967 and 10 paintings centered on the theme of Korean culture created during the final stage of the Culture and Arts Revival Policy (1974-1978).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se Korean heritage paintings in 1980, the Art Council Korea assumed full responsibility for their management and utilization via a “rental” system.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production background of the 10 paintings depicting Korean culture, as well as the changes in the location of the collection before they were donated free of charge to the AKS in 1998.